

#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祭器 研究

- 忠孝洞窯址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

정 소 라\*

## 차 례

I. 머리말	
II. 吉禮用 陶磁祭器	2. 第2段階(1450년경~1470년경)
1. 吉禮와 祭器	3. 第3段階(1470년경~1540년경)
2. 陶磁祭器의 製作背景	IV. 吉禮用 粉靑祭器의 樣式의 特徵
III. 吉禮用 粉靑祭器의 變遷	V. 맺음말
1. 第1段階(1420년경~1450년경)	

## I. 머리말

吉禮는 國家的 祭祀儀式으로 五禮중 첫 번째 의식이다. 五禮는 국가적으로 행해야 했던 다섯가지 '禮儀式'으로 儒敎의 핵심사상인 '禮'가 실제적인 행동양식으로 표현된 것이다.<sup>1)</sup> 따라서 儒敎를 統治理念으로 표방하며 건국된 朝鮮王朝는 건국 초기부터 '禮儀式'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으며<sup>2)</sup>, 기본 禮書인 『世宗實錄』 「五禮儀」에 五禮의 절차와 사용되는 儀式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음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따른 자의적인 변형이 없도록 하였다.

吉禮와 이때 사용된 儀式用器인 祭器에 대한 내용 역시 『世宗實錄』 「五禮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따르면 朝鮮王朝의 吉禮用 祭器는 대부분 銅을 사용해서 제작하도록

\* 국민대학교 강사

1) 五禮는 吉禮외에 嘉禮·軍禮·賓禮·凶禮 등 다섯가지 儀禮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吉禮는 大祀, 中祀, 小祀와 같은 祭祀행위에 관한 儀禮이며, 嘉禮는 國婚이나 宴會와 같이 왕실이 親萬民 할 수 있는 儀禮이다. 賓禮는 史臣의 迎送 등 事大交隣에 대한 儀禮이며, 軍禮는 出征과 같이 國家와 王權을 수호하는 儀禮이다. 마지막 凶禮는 왕의 죽음에 따른 國葬儀禮이다.

2) 朝鮮이 王朝初期부터 儒敎의 '禮儀式'을 실행하고자 한 노력들은 實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太祖는 즉위 직후 敎旨를 내려 宗廟와 社稷을 새로 營造하도록 하였으며 淫祀를 금하였다.(『太祖實錄』 卷1, 元年 7月 28日條) 또한 一般民들도 家廟를 세워 祭祀를 지내도록 하고 있으며(『太祖實錄』 卷2, 元年 9月 24日條), 太宗 역시 기한을 정해 家廟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太宗實錄』 卷11, 6年 6月 9日條)

되어있다.<sup>3)</sup> 그러나 유물로는 禮書에 실려있지 않은 재질인 陶磁祭器가 전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기종의 분류와 이에따른 명칭 및 용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다.<sup>4)</sup>

粉靑沙器로 만들어진 祭器는 朝鮮時代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陶磁祭器이므로 朝鮮時代 陶磁祭器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된다. 또한 전하는 유물의 양이 많고 제작연대가 거의 확실한 발굴품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편년에 따른 양식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의 白磁祭器로 이어지는 과정과 전체 陶磁祭器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대한 고찰 역시 시도된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우선 『世宗實錄』 「五禮儀」를 근거로 朝鮮時代의 吉禮와 吉禮用 祭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陶磁祭器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禮書에는 실려있지 않은 陶磁祭器가 제작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의 내용을 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全羅南道 光州의 忠孝洞 窯址 出土品을 기준으로 삼아서 吉禮用 粉靑祭器의 變遷과 樣式的 特徵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시도는 朝鮮時代 祭器와 陶磁祭器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粉靑祭器는 물론 그 이후에 제작된 白磁祭器의 樣相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陶磁器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여 陶磁研究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5)</sup>

## II. 吉禮用 陶磁祭器

吉禮用 粉靑祭器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朝鮮時代의 吉禮用 陶磁祭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吉禮와 吉禮用 祭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후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통해서 陶磁祭器의 제작배경을 알아봄으로써 粉靑祭器가 만들어진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3) 본고에서는 銅으로 제작된 祭器를 '銅祭器'라 하고 陶磁器로 제작된 祭器는 '陶磁祭器'라고 하겠다. 陶磁祭器 중에서도 粉靑沙器로 제작된 祭器는 '粉靑祭器'로 白磁로 제작된 祭器는 '白磁祭器'로 부르기로 한다.

4) 朝鮮時代의 陶磁祭器를 주제로한 논문으로는 1988년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서 朝鮮時代 祭器 特別展을 열며 간행한 전시회 팸플릿에 실린 짧은 논문이 있으나 몇몇 관점이 본 논문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둔다. 野村惠子, 「李朝陶磁における祭器の變遷」, 『企劃展 朝鮮陶磁シリーズ-II 李朝の祭器』(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8), pp. 14~16 참조. 陶磁祭器와 연관된 보고서와 논문들에서도 종종 그 명칭과 용도를 정확하지 않게 구분하거나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5) 『世宗實錄』 「五禮儀」를 따르면 凶禮에서 사용된 그릇들도 祭器라고 부르고 있으며 吉禮用 祭器들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선 吉禮用 祭器만을 다루고자 한다.

## 1. 吉禮와 祭器

『世宗實錄』「五禮儀」(端宗 2年(1454)편찬)는 朝鮮王朝 建國後 처음으로 편찬된 禮書로 王朝初期부터 시행되어왔던 儒敎的 禮制가 世宗代를 거쳐 정리되어 나온 것이다.<sup>6)</sup> 여기에는 吉禮에 속한 祭祀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으며 '祭器圖說'과 '饌實圖'란 항목을 두어 吉禮用 祭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祭器圖說'은 祭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실어 놓은 것으로 吉禮에서 사용된 모든 祭器의 명칭과 함께 그 형태가 그려져 있고 재질 및 크기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따라서 吉禮用 祭器의 종류와 형태를 알 수 있으며 유물로 전하는 祭器들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를 따르면 朝鮮王朝의 吉禮用 祭器는 일상생활 용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中國 古代 銅器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圖 1). 대부분 銅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으며 그 種類는 약 30여 가지에 이른다. '饌實圖'는 吉禮의 상차림 그림이다(圖 2). 여기에는 각 祭祀에 따라 祭器가 놓이는 위치가 그려져 있을뿐 아니라 그곳에 담겨야 할 음식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으므로 '祭器圖說'에 실린 祭器들이 여러 祭祀에서 어떤 음식을 담아서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吉禮에는 약 20여 가지의 祭祀가 속하며 그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大祀, 中祀, 小祀로 구분된다.<sup>7)</sup>

<표 1> 『世宗實錄』「五禮儀」吉禮 神位 等次<sup>8)</sup>

	天 神	地 祇	人 鬼
大 祀		社稷	宗廟
中 祀	風雲雷雨	嶽·海·瀆	先農·先蠶·雩祀·文宣王·朝鮮檀君· 後朝鮮始祖 箕子·高麗始祖
小 祀	靈星·司寒	名山大川·七祀·祭祭	馬祖·先牧·馬社·馬步

6) 高英津, 『조선중기 예학사상사』(한길사, 1995), pp. 31~33. 李範稷, 『韓國中世 禮思想研究』(一潮閣, 1991), pp. 282~285.

7) 『世宗實錄』「五禮儀」 이후 편찬된 禮書로 『國朝五禮儀』가 있다. 이는 世祖代를 거쳐 成宗 5年(1474) 왕실에 대한 명분이 정립되고 왕조의 기틀이 잡혀지면서 다시 한번 禮制의 정리작업이 필요하게 되자 편찬된 禮書이며, 『國朝五禮序例』(奎 184~186, 2277, 11970)는 儀禮진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소용되는 각종 공예품 목록과 해당 圖說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高英津, (한길사, 1995), 위의책, pp. 33~34 참조. 『國朝五禮儀』에는 吉禮에 大祀, 中祀, 小祀외에 왕의 개인적 차원에서 지내는 俗祭가 속해있으며 『國朝五禮序例』에는 吉禮用 祭器로 일반적인 그릇들과 같은 모습인 常用器 형태의 祭器가 새롭게 실려있다. 그러나 현재 粉靑沙器로는 常用器 형태의 祭器가 발견된 바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대한 내용을 제외시켰다.

8) 李範稷, 『朝鮮初期 五禮研究』(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1989), pp. 72~73의 <표 7> 참조.





…이년에 奉常寺에서 만드는 圓壇의 祭器속에 簠(보), 簋(괘), 大尊(대준), 象尊(상준), 壺尊(호준), 著尊(저준), 犧尊(희준), 山罍(산뢰), 鬯洗(뇌세), 香爐(향로)는 磁器를 쓰고, 燭臺(촛대)와 桴勺(전작)은 백리목을 써서 모두 체제에 의하여 제조하고…다음 祭祀때엔 다시 갖추어 祭祀하도록 하여야 되겠나이다.15)

라고 밝히자 4년 전과는 달리 특별한 논란없이 이를 그대로 따라 陶磁祭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음 祭祀때엔 다시 갖추어 祭祀를 지내도록 해야겠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銅의 부족에 따른 결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던 陶磁器는 粉靑沙器였으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磁器는 粉靑沙器를 의미할 것이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王室이 주체가 되는 圓壇의 祭祀에서도 陶磁祭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6)

銅의 수급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銅錢流通政策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世宗 6年(1424) 8월의 기록에서 보인다. 戶曹에서 鑄錢할 銅을 거두기위한 방안으로

…京外の 官廳 구리기명을 일체 모두 기한을 정하여 수납할 것, 京外の 죄를 범하고 贖錢을 바치는 자는 모두 구리로 贖할 것…歷代의 동전이 흩어져 민간에 있는 것은 일체 모두 수납할 것, 동전을 녹여서 구리로 쓰는 자는 사사로이 鑄錢한 죄로 논할 것입니다…17)

라고 밝히니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야 할만큼 당시 銅의 부족현상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銅錢流通政策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따라 2년후인 世宗 8年(1426)에는 戶曹에서

…鑄錢할 銅이 부족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公私間에 새로 만드는 器皿은 일절 금해서 여기는 자는 杖刑 1백에 처하고 몸은 수군에 보충시킬 것이며…대궐안의 器皿 및 각처의 祭器, 火筒 등 부득이한 물건을 만드는 匠人에 대해서도 主掌하는 工曹로 하여금 적당히 수를 정하도록 하며, 만들 때에는 官원이 친히 감독하고…18)

15) 『世宗實錄』 卷22, 5年 10月 27日條. ‘禮曹啓…今奉常寺所造圓壇祭器內 簠 簋 大尊 象尊 壺尊 著尊 犧尊 山罍 鬯洗 香爐 用磁器燭臺桴勺用百木 並儀體制製造…後祭時更備以祭 從之’.

16) 王室의 儀式器로 粉靑沙器가 사용된 예로는 祭器 외에도 태항아리가 전하고 있어서 이와같은 의견을 뒷받침 한다. 貞昭公主墓 出土 粉靑沙器 태항아리 內壺가 이미 알려져 있으며, 世祖大王의 태항아리 內壺와 燕山君母尹氏의 태항아리 內壺 뚜껑도 粉靑沙器가 사용되었음이 새로이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1999). p. 28, 36, 58, 80, 121, 123, 251, 285. 참조.

17) 『世宗實錄』 卷25, 6年 8月 5日條. ‘戶曹啓…京外公處銅器一皆定限收納 一京外犯罪收贖者並贖以銅…一歷代銅錢散在民間者一皆收納 一消錢爲銅以盜鑄錢論 從之’. 田勝昌, 위의논문(1998), p. 53. (註 8) 참조.

18) 『世宗實錄』 卷34, 8年 12月 6日條. ‘戶曹啓…鑄錢銅不足, 請自今公私新造器皿一禁, 違者杖一百身充水軍…一關內器皿及各處祭器火筒等不得已之收鑄成匠人令主掌工曹量宜定數鑄成時則官員親監’. 田勝昌, 『15世紀 朝

라고 밝히고 있어서, 새로운 器皿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대궐안의 器皿 및 祭器, 火筒과 같이 부득이한 물건들은 과다한 제작이 없도록 하고 있을 뿐 銅으로의 제작은 허용하고 있어서 중요한 器皿부터 시작해서 점차 銅器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陶磁祭器는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사용되었다. 世宗 12年(1430) 禮曹에서

1. 각 고을에서 籩(변), 豆(두), 簠(보), 簋(괘), 登(등), 銅(형), 尊(준), 罍(뇌), 俎(조), 帖(첩), 爵(작), 篚(비)等 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奉常寺의 각색 祭器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祭器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조항은 아뢴대로 시행하게 하되, 祭器의 鑄造는 우선 磁器를 구워 만들도록 하소서.<sup>19)</sup>

라고 건의하자, 이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1426년 이후 어느정도 銅의 사용이 완화되었으므로 중앙에서는 銅으로 만들어진 祭器를 보내지만, 지방의 祭祀에서는 여전히 陶磁祭器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陶磁祭器가 吉禮用으로 꾸준히 사용되기는 했으나 中央에서의 사용은 점차 줄고 주로 地方祭祀用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sup>20)</sup>

그러나 世宗 12年(1430) 이후로 實錄에서는 더 이상 陶磁祭器를 사용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sup>21)</sup> 世宗 29年(1447)의 기록에

刑曹에 전지하기를 '육전에 구리그릇을 부어 만드는 것을 금하여 그 범이 심히 엄한데 이는 錢幣를 興用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같이 한 것이었으나 이제 楮貨를 다시 쓰게 하였으니 사사로이 그릇 만드는 禁法을 늦추라'하다.<sup>22)</sup>

鮮粉靑沙器·白磁 移行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p. 11. (註 18) 참조.

- 19) 『世宗實錄』 卷 49, 12年 8月 6日條. '…一各官 未知籩 豆 簠 簋 登 銅 尊 罍 俎 帖 爵 篚等 祭器之制 妄意造作 未得精潔 宜以奉常寺諸色祭器 分送各道 見樣鑄成 又造藏祭器庫 令壇直看守 右條依所申施行 其鑄器姑以磁器鑄造 從之.' 田勝昌, 위의논문, (1998), p. 54. (註 11) 참조.
- 20)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建國後 40여년이 지나도록 형식을 갖춘 祭器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朝鮮時代의 吉禮用 祭器가 '祭器圖說'이나 견본을 보지 않고는 만들지 못할 정도로 익숙치 않은 형태와 문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지만 이는 高麗時代의 祭祀와 祭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이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21) 朝鮮王朝實錄에는 15세기 이후로도 吉禮用 祭器와 연관된 기록들이 꾸준히 나오지만 이들은 모두 銅祭器와 일반적인 그릇의 모습을 한 常用器 형태의 陶磁祭器에 대한 내용일 뿐 中國 古銅器 형태의 陶磁祭器를 제작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중 중요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世祖實錄』 卷2, 元年 9月 6日條. 『成宗實錄』 卷245, 21年 閏 9月 21日條. 卷247, 21年 11月 22日條. 卷249, 22年 1月 8日條. 卷251, 22年 3月 27日條. 卷252, 22年 4月 11日條. 卷288, 25年 3月 22日條. 『中宗實錄』 卷56, 20年 12月 18日條. 『宣祖實錄』 卷134, 34年 2月 2日條. 卷180, 37年 10月 20日條. 卷184, 38年 2月 23日條. 『孝宗實錄』 卷 19, 8年 7月 2日條. 『光海君日記』 卷54, 4年 6月 6日條. 『正祖實錄』 卷34, 16年 3月 1日條.

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 점으로 미루어, 15세기 후반 이후 銅錢流通政策이 완화되며 전반적인 銅의 수급상황이 좋아지자 祭器와 같이 중요한 기명은 되도록 禮書를 따라 銅器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Ⅲ. 吉禮用 粉靑祭器의 變遷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통해서 陶磁祭器가 15세기 전반 銅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銅祭器의 대체품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위로는 王室에서 지내는 祭祀에서부터 아래로는 地方의 郡縣에서 지내는 祭祀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實錄의 기록에서 의미하는 陶磁器는 粉靑沙器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같은 추정은 粉靑沙器중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의 簠(보), 簋(궤), 山尊(산준), 犧尊(희준), 象尊(상준), 爵(작)의 여섯가지 기종과 동일한 형태를 한 유물이 전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이번 장에서는 粉靑祭器중 유물의 양이 많지 않아 분석이 곤란했던 象尊(상준)과 爵(작)을 제외한 簠(보), 簋(궤), 山尊(산준), 犧尊(희준) 등 네가지 기종을 중심으로 형태와 문양 및 시문기법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시기는 吉禮用 粉靑祭器의 제작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420년경부터 소멸시기로 판단되는 1540년경까지로 잡았다. 각 단계의 연대는 朝鮮王朝實錄의 내용과 忠孝洞 窯址의 층위 그리고 기존 粉靑沙器 研究의 시기구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sup>23)</sup> 기술한 바와 같이 『世宗實錄』 「五禮儀」는 朝鮮초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禮制가 世宗代를 거쳐 편찬된 것이므로 유물의 형태와 문양은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과 비교하고자 하며 祭器가 놓이는 위치는 '宗廟饌實圖'를 따랐다(圖 2).

22) 『世宗實錄』 卷117, 29年 7月 29日條. '傳旨 刑曹六典禁鑄銅器 其法甚嚴 此則爲鑄幣興用 故禁防如此 今復用楮貨 其弛私鑄之禁.'

23) 忠孝洞 窯址는 1963년 國立中央博物館에 의해서 1차 조사가 이루어진 후 1991년 國立光州博物館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굴된 유일한 粉靑沙器 窯址로, 朝鮮前期 粉靑沙器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의 전 시기에 걸친 다양한 유물들이 나왔으며, 각 층위마다의 편년이 잡혀 있다. 또한 모든 층위에서 일정양의 祭器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시기구분의 근거와 함께 粉靑祭器의 전 기간에 걸친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忠孝洞 窯址의 각 층위별 활동연대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pp. 25~44, 154~159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忠孝洞 窯址 층위

층 위	활동시기	粉靑祭器의 變遷
E2지역, W1지역	1424년 전후 ~ 1450년 전후	1단계
W2지역 9~7층	1455년 전후 ~ 1457년 전후	2단계
W2지역 6층	1458년 전후 ~ 1476년 전후	
W2지역 3층	1477년 전후 ~ 1483년 전후	3단계
W2지역 2층	1483년 전후 ~ 1510년 전후	

## 1. 第 1 段階(1420년경~1450년경)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따르면 太宗 18년(1418) 瀋源殿과 山陵의 祭祀에서 沙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陶磁祭器의 사용과 연관된 최초의 내용이다.<sup>24)</sup> 山陵에서 지내는 祭祀는 『國朝五禮儀』(1474) 편찬 이후 吉禮에 편입되지만 왕이 주체가 되어 지내는 祭祀이므로 그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1418년 이전에는 吉禮用으로 陶磁祭器를 사용한 예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sup>25)</sup> 粉靑祭器가 吉禮에서 사용된 분명한 연대는 世宗 5年인 1423년 이었다.<sup>26)</sup>

忠孝洞 窯址의 층위로는 '茂珍內贍'銘片이 발견된 가장 아래의 E2지역과 W1지역이 이 단계에 속한다. 이 층위는 '茂珍'이 1424년에서 51년까지 忠孝洞의 지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형성시기가 1424년에서 1451년을 전후한 시기로 잡혀있다.<sup>27)</sup> 따라서 1단계의 시작연대는 實錄과 층위의 연대를 고려하여 1420년경으로 잡았으며 마지막 연대는 忠孝洞 窯址의 층위에 근거해서 1450년경으로 잡았다.

발굴결과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光州의 磁器所가 忠孝洞窯址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이 층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당시 粉靑沙器의 상황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으며 粉靑祭器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sup>28)</sup>

### 1) 簠(보)

簠는 버를 담아서 祭床의 중앙에 놓는 장방형의 祭器로 몸체와 뚜껑이 한조를 이룬다(圖 1). 忠孝洞出土品중 장방형의 동체와 구연부에서 굽쪽으로 뚜렷하게 꺾어지며 내려가는 측면의 모습 등으로 簠의 몸체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圖 4). 이 簠는 양쪽으로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과 같이 투공이 뚫린 손잡이가 있고 앞뒤에는 '祭器圖說'의 괴수를 단순화한 듯한 작은 돌기가 붙어있다. 구연부의 끝을 수평으로 자른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도 일상용기와 다른 儀式器로서의 特徵이다. 구연부에는 雷文이 변형된 것 같은 정사각형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측면에는 여러개의 구불구불한 물결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짧은 선들이 뻗어나가도록 표현되어 있는데 세부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문양의 기본형태는 역시 '祭器圖說'과 같다. 시문기법으로는 白象嵌기법을 이용하였다. 굽은 몸체와 같은 장방형이지만

24) 註 9) 참조.

25) 註 7) 참조.

26) 註 15) 참조.

27)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보고서(1993), pp. 18~23, 146, 153, 157 참조.

28)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보고서(1993), p. 1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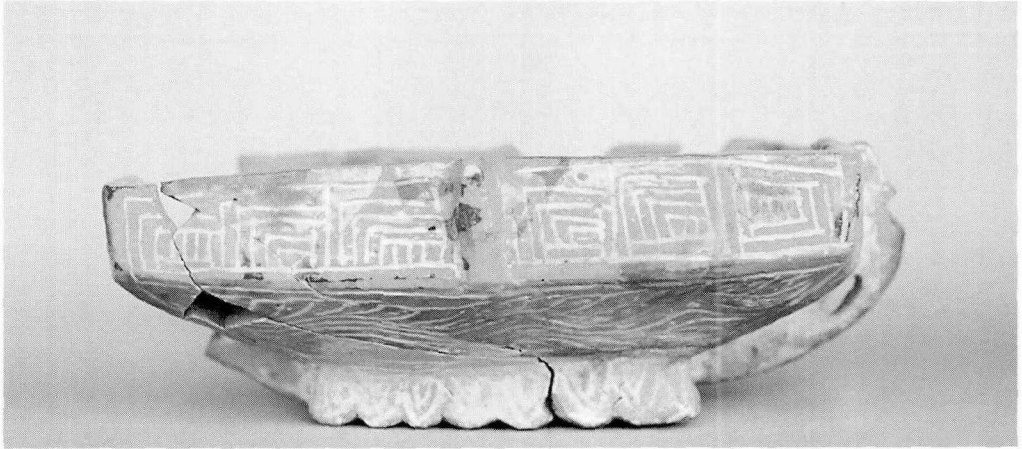


圖 4. 粉靑象嵌文簋 (몸체) (忠孝洞窯址 E2지역 出土 遺物, 國立光州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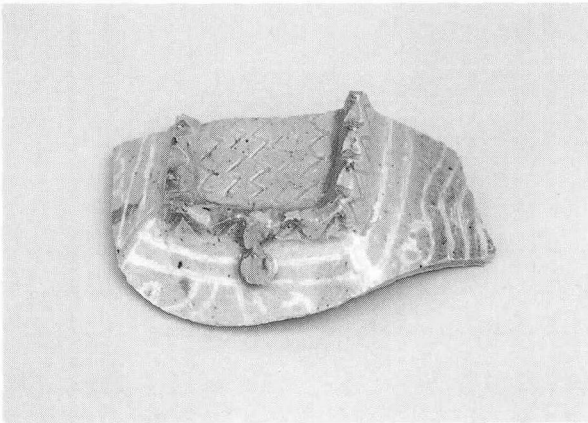


圖 5. 粉靑象嵌文簋 (뚜껑) (忠孝洞窯址 出土 遺物, 國立光州博物館所藏)

‘祭器圖說’과는 달리 군데군데를 톱니식으로 뚫은 후 모양에 따라 이중의 연판문을 시문해 놓았다. 이러한 모습은 簋의 뚜껑에 붙은 장방형의 톱니식 장식과 같아서 몸체와 뚜껑이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뚜껑의 톱니형 장식에는 안쪽까지 꼼꼼하게 시유가 되어 있으며 문양이 있는 반면 굽은 안쪽에 문양이 없고 유약 역시 발라져 있지 않아서 몸체와 구분이 가능하다(圖 5).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도 장방형의 동체와 톱니모양의 장식 그리고 구연부에서 크게 각을 이루며 이어지는 측면의 모습등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에 실린 簋의 뚜껑과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6).<sup>29)</sup> 문양의 소재 역시 ‘祭器圖說’과 같아서 구연부에는 두단의 雷文이 시문되어 있고, 측사면에는 물결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잔선이 뻗어나가는 듯이 시문되어 있다. 시문은 白象嵌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되어 있다. 톱니형태를 한 장식의 끝 마무리는 ‘祭器圖說’에 비해 부드럽게

29)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서는 이 유물을 簋의 몸체로 보고 도록에 실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뚜껑으로 보아 도록의 사진을 뒤집어서 게재했기 때문에 사진이 어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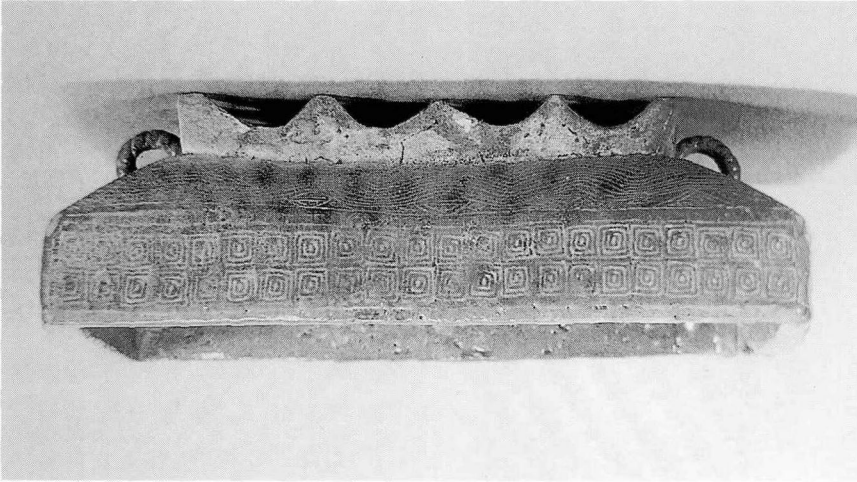


圖 6. 粉青象嵌文簠(뚜껑) (大板市立東洋陶磁美術館所藏) 高 8.8

표현되어 있는데 흙이라는 재질에는 그림과 같은 날카로운 끝마무리가 어울리지 않으며 표현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忠孝洞 出土 簠의 몸체보다는 형태가 정확하고 문양도 촘촘하고 깔끔하게 처리되는 등 전체적인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祭祀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簠의 뚜껑으로 추정되는 유물에는 '祭器圖說'에는 없는 고리가 톱니형 장식의 양 옆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고리는 『三才圖會』라는 中國의 책에 실린 器皿의 뚜껑에서 보이는 것으로 당시 中國의 古銅器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圖 7).<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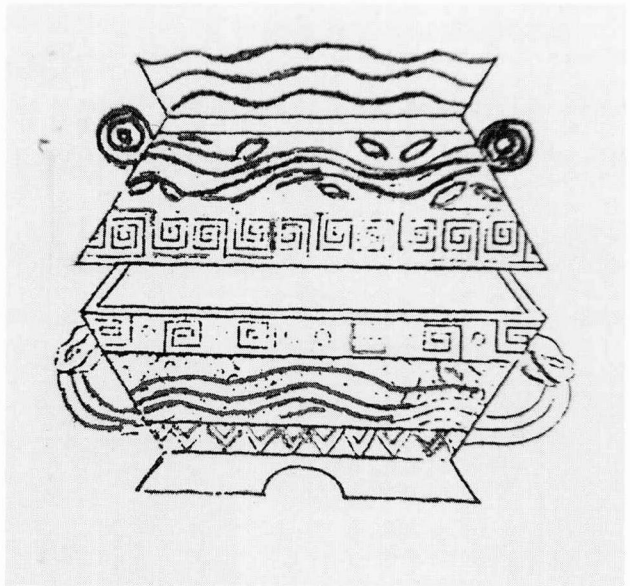


圖 7. 『三才圖會』卷之一, 器用類 古器

30) 『三才圖會』는 明, 萬曆 35年(1607)에 간행된 것으로 『世宗實錄』 「五禮儀」보다 시기가 떨어진다. 그러나 책에서 다루고 있는 儀式器나 기명들은 모두 朝鮮의 祭器들보다 시기가 올라가는 中國의 古銅器들이므로 朝鮮의 祭器와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圖 8.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 籩

문양과 유사하다(圖 10).<sup>31)</sup> 籩의 뚜껑에 달려있는 고리와 마찬가지로 당시 여러 中國 古銅器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 2) 簋(궈)

簋는 기장을 담은 타원형의 祭器로 簠와 함께 祭床의 중앙에 놓이며 몸체와 뚜껑이 한조를 이룬다(圖 8).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는 타원형의 몸체와 풍혈이 있는 높은 굽으로 簋의 몸체임을 알 수 있는 祭器가 소장되어 있다(圖 9). 이 유물의 양쪽으로 달려있는 손잡이에는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과 매우 유사한 귀가 크고 입이 뾰족한 괴수의 얼굴이 음각되어 있다. 그러나 구연부와 굽에 白象嵌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는 중간이 오목한 타원형 문양과 이와 유사한 길쭉한 문양들은 '祭器圖說'에서 보이는 둥근 꽃모양의 문양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明代의 禮書인 『大明集禮』 '祭器圖說'에 실린 簋의



圖 9. 粉靑象嵌文籩 (몸체) 高 13.0

31) 『大明集禮』(明 太祖編, 奎重1736)는 『國朝五禮儀』 序文에서 인용되고 있는 中國의 禮書들중 明代 洪武年間的 儀禮制度를 역은 洪武禮制의 前身으로 明 太祖 3年(1370)에 만들어진 禮書이며 世宗代에 구입을 요청하고 있다. 『國朝五禮儀』 序文에 따르면 五禮에 관한 의식은 위로 高麗의 禮書와 『世宗實錄』 「五禮儀」 그리고 많은 中國의 禮書들을 참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大明集禮』는 朝鮮王朝 五禮의 틀을 세우는데 기본이 되었던 禮書들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池斗煥, 『『國朝五禮儀』 編纂過程』, 『釜山史學』9(부산사학회, 1985), pp. 172~176.



圖 10. 『大明集禮』‘祭器圖說’ 簋 (奎重 1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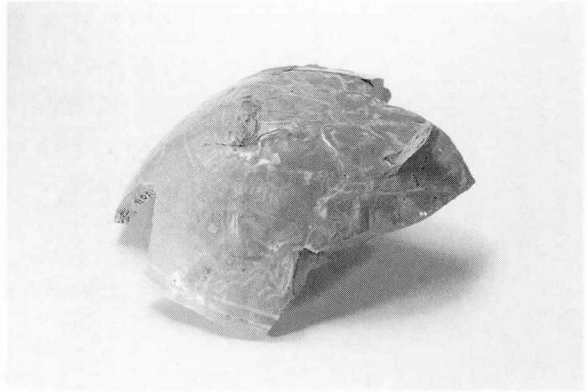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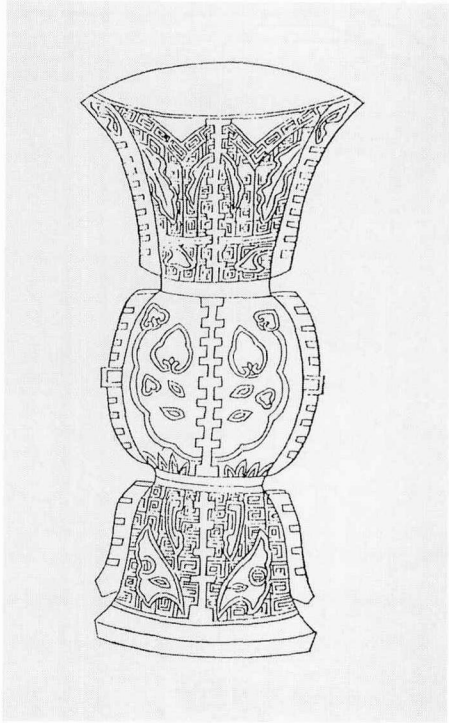


圖 11. 粉青象嵌文簋 (뚜껑) (忠孝洞窯址 出土 遺物,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粉靑祭器 유물은 타원형의 동체와 위쪽에 붙어 있는 반원형 관 형태의 장식으로 볼 때 簋의 뚜껑으로 추정된다(圖 11). 이러한 장식은 『大明集禮』‘祭器圖說’을 따른 것으로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圖 10). 꽃, 원, 선 등 다양한 소재를 모티브로한 여러 문양이 삼단으로 나뉘어 전면에 가득 시문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어느 ‘祭器圖說’과도 연관이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이중 타원형에서 여러개의 구불거리는 선들이 뻗어나오는 문양은 시기가 떨어지는 粉靑沙器와 白磁中簋로 추정되는 유물의 주문양으로 등장하는 ‘계’의 초기적인 모습으로 생각된다.

### 3) 山尊(산준)

山尊은 『大明集禮』의 ‘祭器圖說’에만 실려있는 기종으로(圖 12),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에는 立壺 형태의 山甕(산뢰)라는 기종의 설명에서 ‘山甕는 山尊과 같다’라고 하여 명칭만이 나온다(圖 13). 그런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중에는 세 개의 거치대가 사선의 측면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山尊의 굽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圖 14). 형태상 『大明集禮』‘祭器圖說’의 굽과 거의 같으며, 簋의 구연부에서 보였던 雷文이 전면에 백상감으로 촘촘하게 시문되어 있다.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에는 실려있지 않은 기종인 山尊이 만들어진 이유는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成宗 22年(1491)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成宗은 祭器鑄成都監의 提調 盧思愼 등이



禮書云山壘山尊也刻而畫之為山雲之形謂之壘  
 者取象雲雷博施如人君下及諸臣山壘夏后氏之  
 尊也周禮圖云畫山雲形一壘玄酒一壘玄齊



山壘

圖 12. 『大明集禮』‘祭器圖說’山尊 (奎重 1736)

圖 13.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山壘



圖 14. 粉青象嵌文山尊 (忠孝洞窯址 出土 遺物,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山罍에 있어서는 古文 및 「五禮儀」 주에 모두 이르기를 '宗廟에는 山罍를 쓴다'고 하였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山尊입니다. 예문에 의거하여 山罍에 개조해야 하겠습니까.<sup>32)</sup>

라고 아뢰자 禮書에 의거하여 山尊을 山罍로 개조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1491년 이전까지는 吉禮에서 山罍 대신 山尊이 사용되었으므로 朝鮮의 禮書에는 없는 山尊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와같이 1단계인 1420년경부터 1450년경 까지 제작된 吉禮用 粉靑祭器들은 陶磁器임에도 불구하고 銅을 사용하도록한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에 실린 祭器의 형태와 문양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銅의 부족이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에 따라 粉靑祭器가 吉禮중에서도 圓壇과 같이 중요도가 높은 祭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2. 第 2 段階(1450년경~1470년경)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을 충실히 따르던 吉禮用 粉靑祭器는 시간이 흐르며 형태와 문양에서 점차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忠孝洞窯址 에서는 W2지역 9층에서 7층에 이르는 층위와 W2지역 6층의 두 개 층위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W2 지역 9층에서 7층에 이르는 층위에서 1455년에서 57년까지 존속한 기관인 '德寧府'銘이 새겨진 접시와 크기와 형태, 무늬배치가 똑같은 접시가 나왔다.<sup>33)</sup> 때문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1450년경을 2단계의 시작시기로 잡아 1단계와 연결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 층위인 W2역 6층에서는 편년유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3단계에 포함시킨 W2지역 3층에서 1477년이 상한인 '成化'銘 墓誌片이 나왔으므로 2단계의 마지막 시기는 1470년경으로 잡았다.<sup>34)</sup>

32) 『成宗實錄』 卷 249, 22年 1月 8日條. '祭器鑄成都監 提調 盧思愼等 啓曰…山罍則古文及五禮儀注 皆云宗廟用山罍 而今所用者乃山尊也 依禮文 改造山罍乎 傳曰…山尊 亦依禮文以山罍改造'.

33)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보고서(1993), pp. 157~158 참조. 2단계로 포함시킨 忠孝洞窯址의 두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들 사이에서 역시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이들 층위는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 두 층위에서 보이는 변화보다는 3단계로 포함시킨 층위에서 보이는 변화가 더욱 뚜렷했다. 또한 시기구분상 2단계에 속한 두 층위를 각각 한 단계씩으로 나누어 세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큰 흐름에 맞추어 두 층위를 모두 2단계에 포함시켰다.

34)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보고서(1993), pp. 150~152, 157~158 참조. 2단계와 3단계를 나눈 것은 忠孝洞窯址 出土 유물에서 보이는 변화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단계별 연대 역시 忠孝洞窯址를 따랐다. 1단계와 달리 2·3단계에 속한 忠孝洞窯址 出土 유물들이 과연 당시 粉靑沙器의 전체적인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단계에 속한 忠孝洞 층위에서 주로 출토되는 彫花粉靑沙器가 제작되면서부터 粉靑沙器가 지방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시기 이후로는 당시의 전체적인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粉靑沙器나 粉靑窯址가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2단계와 3단계의 구분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까지로는 忠孝洞이 가장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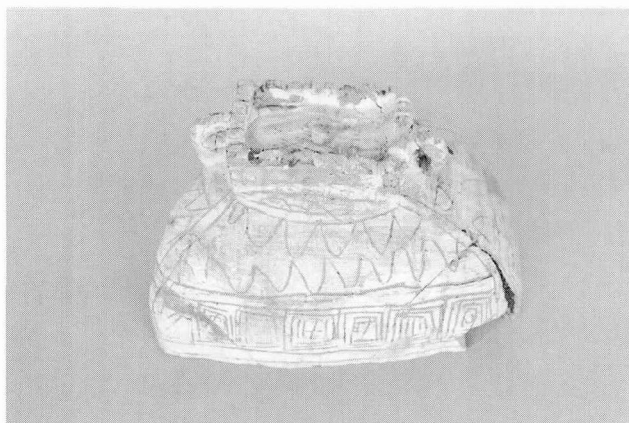


圖 15. 粉青彫花文篋(뚜껑) (忠孝洞窯址 W2지역 8층 出土 遺物, 國立光州博物館所藏)



圖 16. 粉青彫花文篋(몸체) 高 11.0

체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16). 그러나 이 유물은 양쪽으로 붙어있던 손잡이와 앞뒤에 붙었던 장식이 사라졌고 바닥이 좁아지면서 측면에서 굽에 이르는 경사가 급해졌다. 툽니형 굽 역시 작아지고 무더졌다. 문양도 雷文과 물결文으로 소재는 '祭器圖說'과 같지만 雷文의 크기가 훨씬 커졌고, 물결文도 굴곡이 적어지고 양쪽으로 뻗어있던 짧은 선들은 사라지는 등 문양표현에서 과장과 생략이 동시에 나타난다.

### 1) 篋(보)

忠孝洞 出土의 粉青祭器중에는 장방형의 형태와 툽니모양의 장식, 양쪽의 고리 등 기본형태로 볼 때 篋의 뚜껑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圖 15). 그러나 이 篋의 뚜껑은 형태상 구연부에서 툽니형 장식쪽으로 뚜렷하게 꺾여지던 부분과 사면 모서리의 꺾임이 둔해지면서 각이 많이 완화되었고, 툽니형태의 장식도 끝이 무더서 1단계에 속한 유물들과는 달리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과 차이를 보인다. 문양도 蓮瓣文과 雷文, 물결文으로 소재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부드럽게 흐르던 물결文에서는 불룩거리는 굴곡이 심해지고 雷文도 크고 앙성해지면서 표현에서 '祭器圖說'과 차이를 보인다. 시문기법 역시 象嵌기법에서 彫花기법으로 바뀌었다.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도 장방형의 형태와 툽니형 굽으로 篋의 몸

계적으로 발굴된 窯址이므로 현재로서는 이곳의 발굴 결과 잡혀진 연대를 기준으로 2단계와 3단계를 구분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 2) 簋(궐)

忠孝洞에서는 타원형의 몸체와 높은 굽으로 簋의 몸체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다(圖 17). 하지만 1단계의 유물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었던 양쪽의 손잡이가 사라지고 대신 簋의 앞뒤에 있었던 것과 같은 작은 장식이 붙어있다. 원을 중심으로 나뭇잎과 같은 형태가 양쪽으로 이어지는 문양이 구연부에만 시문되어 있는데, 소재는 전 단계와 같지만 단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현이 단순화되었으며, 조화기법을 사용하였다.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도 장식이 달린 뚜껑과 군데 군데를 뚫은 높은 굽으로 簋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18). 그러나 이 유물은 타원형이던 몸체가 원형으로 바뀌었고 구연부에서 시작되었던 손잡이도 아래쪽으로 치우쳐 붙어있다. 꽃모양의 문양 소재는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과 연관 되지만 문양의 단위가 커지며 드문드문 몇 개만이 그려져 있다.

## 3) 山尊(산준)

1단계에서 山尊의 굽이라고 보았던 유물의 몸체로 추정되는 유물이 忠孝洞에서 출토되었다(圖 19). 사진으로 벌어지는 구연부와 원형의 몸체를 전 단계의 굽과



圖 17. 粉靑彫花文簋(몸체)(忠孝洞窯址 W2지역 8층 出土 遺物, 國立光州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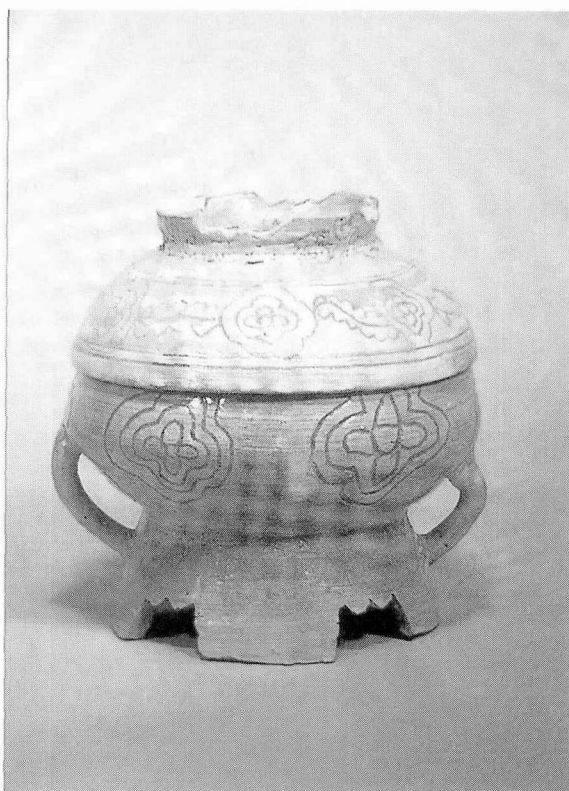


圖 18. 粉靑彫花文簋(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所藏) 高 17.5



圖 19. 粉靑彫花文山尊 (忠孝洞窯址 W2지역 6층 出土遺物, 國立光州博物館所藏)

연결시켜 보면 『大明集禮』 '祭器圖說'의 山尊과 유사하다(圖 12). 그러나 『大明集禮』 '祭器圖說'과는 달리 구연부가 길어지고 몸체도 짧고 둥글게 변해 있어서 형태상 변화를 보인다. 문양 역시 전면에 작은 雷文이 촘촘하게 백상감으로 시문되었던 전 단계의 굽과는 달리 음각으로 등성등성하게 牡丹文과 雷文이 시문되어 있을 뿐이다.<sup>35)</sup>

#### 4) 犧尊(희준)

犧尊은 측면에 소를 그린 鉢형태의 祭器로 술을 담아 다른 종류의 尊들과 함께 祭床 아래에 일렬로 놓인다(圖 20).<sup>36)</sup>

忠孝洞窯址에서 속이 깊은 鉢형태의 동체 외면에 뿔이 달린 짐승이 그려져 있고 일상용기들보다 높은 굽이 달린 모습으로 犧尊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다(圖 21). 그러나 유물의 외면에 그려진 짐승은 '祭器圖說'에 그려진 그림이라든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 단계에 속한 다른 祭器들과 마찬가지로 '祭器圖說'의 기본적인 형태와 문양의 特徵만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단계인 1450년부터 1470년 사이에 제작된 吉禮用 粉靑祭器들은 형태와 문양에서 과장과 생략이 동시에 나타나며 '祭器圖說'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15세기 후반 이후로는 銅의 수급이 점차 원할해지므로 吉禮用 祭器는 되도록 禮書를 따라 銅器를 사용했을 것이다. 實錄의 내용에서도 1430년 이후로는 陶磁祭器가 중앙의 祭祀보다는 지방의 祭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吉禮用 粉靑祭器의 사용처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뀜에 따라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데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 山尊의 외면에는 거치대가 붙어있는데 이러한 거치대는 朝鮮의 '祭器圖說'이나 祭器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中國의 祭器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이다. 그런데 粉靑祭器 이후 白磁祭器로 넘어가면 山尊외에도 이러한 거치대가 붙는 吉禮用 祭器가 늘어나 일반기명과 구분되는 祭器의 特徵중 하나가 되므로 앞으로 양자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6) 1단계로 포함시킨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犧尊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圖 20.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 犧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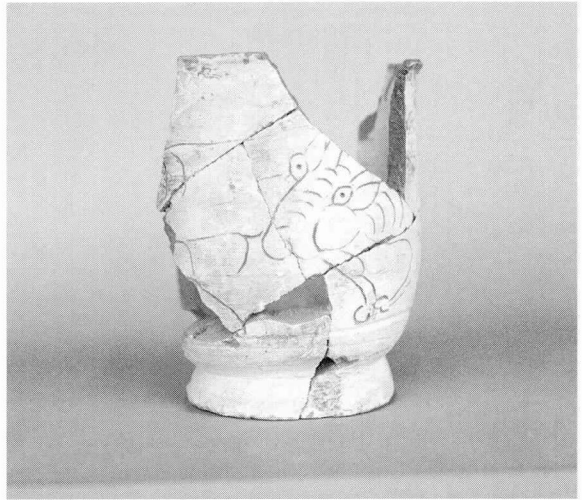


圖 21. 粉靑彫花文犧尊 (忠孝洞窯址 W2지역 8층 出土 遺物, 國立光州博物館所藏)

### 3. 第 3 段階(1470년경 ~ 1540년)

15세기 후반 부터 점차 형태와 문양에서 '祭器圖說'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던 吉禮用 粉靑祭器는 3단계의 시작인 1470년경 이후로는 전 단계부터 진행되던 변화들이 좀더 분명해지며 '祭器圖說'과는 무관한 형태로 바뀐다.

忠孝洞 층위로는 W2지역 3층과 W2지역 2층의 두 층위가 포함되는데, 아래층에서 1477년이 상한인 '成化'銘 墓誌片이 나왔으므로 1470년경을 시작연대로 잡았다. 그러나 이 두 층위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祭器의 일부분만이 나왔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이용했고 忠孝洞窯址 出土유물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덩병과 귀얄, 鐵花기법을 사용한 유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하한연대는 일반적으로 粉靑沙器 쇠퇴기의 마지막 연대로 인정되는 1540년으로 잡았다.<sup>37)</sup>

#### 1) 簠(보)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는 장방형의 형태와 수평으로 잘라 마무리한 구연부 끝의 모습 그리고 톱니식으로 처리된 굽으로 簠의 몸체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22).

37)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 277~278.



圖 22. 粉靑덤빙문籩(동체) (大板市立東洋陶磁美術館所藏)  
高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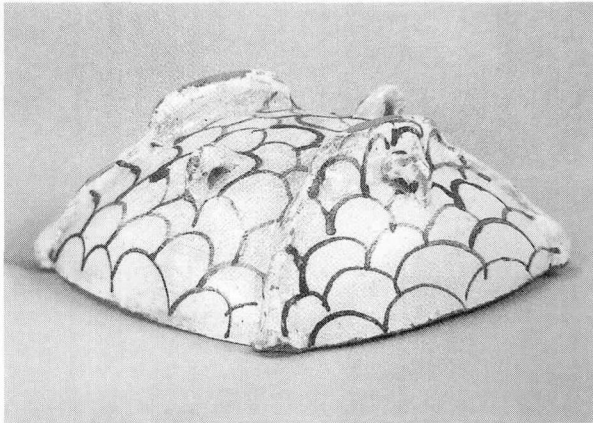


圖 23. 粉靑鐵畫文籩(뚜껑) 高 15.2

이 유물은 그러나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과는 달리 구연부에서 측사면으로 꺾어지던 모서리가 곡선으로 바뀌었고 구연부 아래로는 사면의 모서리도 사라지면서 거의 원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동체의 양쪽으로 붙어있던 손잡이와 앞뒤로 있던 장식도 사라지고 대신 사면에 긴 대가 붙어 있다. 덩빙기법을 사용하며 전면에 분장을 했을 뿐 문양도 없다.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도 장방형의 형태와 양쪽의 고리로 籩의 뚜껑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圖 23). 이 유물 역시 '祭器圖說'과 달리 모든 모서리가 사라지면서 동체가 반원형으로 변했다. 중앙에 있던 톱니형태의 장식도 사라지고 양쪽의 모서리가 긴 대로 연결되어 있다. 덩빙을 한후 1단계에 속한 유물의 측면에 시문되어있던 물결문의 변형이라고 생각되는 불록거리는 문양을 鐵花로 가득 시문해 놓았다.

## 2) 簋(궤)

福岡市立美術館에는 원형의 동체와 측면에 붙어 있는 거치대로 簋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24). 이 유물의 굽은 중간중간을 뚫은 할굽으로 의식기로서의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굽의 높이가 진 단계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거치대도 좁고 낮게 붙어 있어 전체적인 형태가 儀式器라기보다는 일상기명의 큰鉢과 같이 변해 있다. 덩빙기법만을 사용해 전체를 분장해 놓았을 뿐 문양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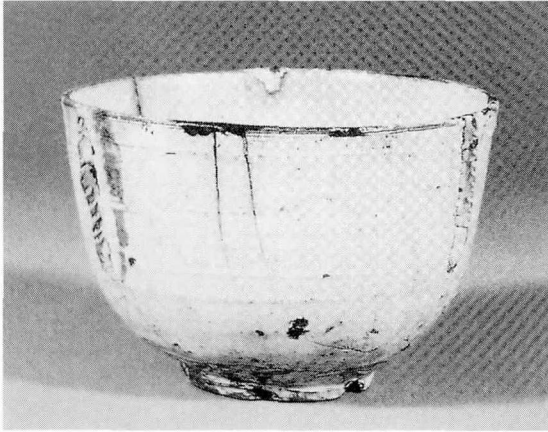


圖 24. 粉靑덤벉文盞 (몸체)

### 3) 山尊(산준)

湖巖美術館에는 사면에 붙어있는 뚜렷한 거치대와 벌어지는 높은 굽으로 山尊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25). 그러나 삼단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던 전 단계까지의 유물들과는 달리 구연부가 짧고 표시가 안날정도로 약간만 외반되어 있다. 귀얄칠을 한 후 조화기법으로 구연부와 굽의 위 아래에 선을 돌리고 중간에는 그저 몇줄의 선만을 그어놓았을 뿐 특별한 문양은 없다.



圖 25. 粉靑彫花文山尊 (湖巖美術館所藏) 高 18.0

### 4) 犧尊(희준)

犧尊은 다른 祭器들과 달리 『祭器圖說』에서 형태상 변화가 생겨 『國朝五禮序例』(1474)에는 소를 직접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圖 26).<sup>38)</sup> 이와같은 변화는 유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國朝五禮序例』 편찬 이후에 제작된犧尊은 모두 소를 그대로 형상화한 모습이며,<sup>39)</sup> 湖巖美術館에도 동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圖 27). 이러한 형태의 기명은

38) 註 7) 참조.

39) 忠孝洞 窯址출토 유물에서도 이러한 '祭器圖說'상의 변화는 층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世宗實錄』 「五禮儀」 편찬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 W2지역 8층에서는 말형의犧尊이 나왔으며 『國朝五禮序例』 편찬시기에 형성된 W2지역 3층에서는 象形의 尊이 발굴되었다. 禹京美, 「粉靑沙器의 새로운 기형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pp. 58~60. 정소라, 「朝鮮時代 陶磁祭器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pp. 60~61 참조. 이와같은 형태상의 변화는 象尊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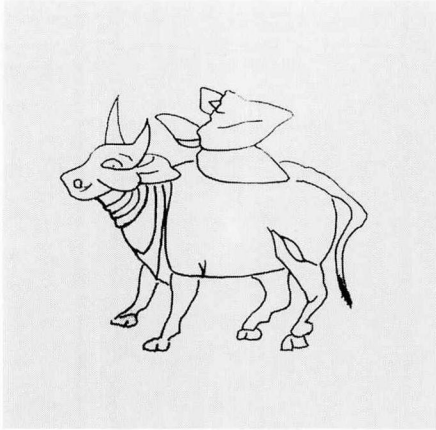


圖 26. 『國朝五禮序例』‘祭器圖說’犧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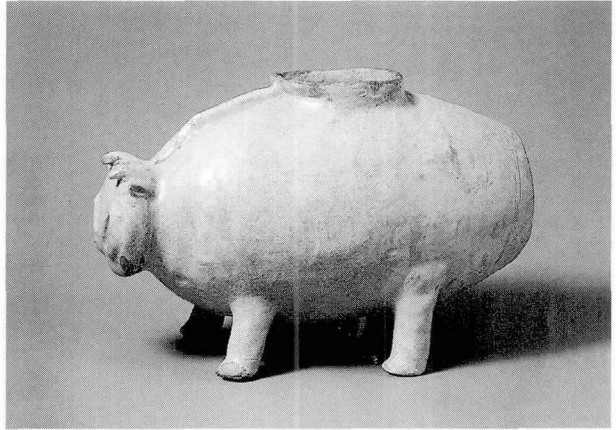


圖 27. 粉靑 덩벙문犧尊 (湖巖美術館所藏) 高 17.9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으므로 儀式器임을 알 수 있고, 등에 뚫린 구멍과 뿔이달린 얼굴 모습으로 犧尊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면이 평평한 몸체는 동물의 몸이라기 보다는 粉靑沙器만의 특징적인 기형인 장군과 같다. 얼굴 모습도 실제 소와는 차이가 있고 덩벙기법만을 사용하였을 뿐 문양도 없다.

이처럼 吉禮用 粉靑祭器의 마지막 단계인 1470년경에서 1540년경 사이에 제작된 유물의 형태와 문양은 『世宗實錄』「五禮儀」‘祭器圖說’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전 단계부터 ‘祭器圖說’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던 吉禮用 粉靑祭器에 어떤 특별한 제제가 가해지지 않자 그 변화가 계속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IV. 古銅器形 粉靑祭器의 樣式的 特徵

현재 奎章閣에는 『世宗實錄』「五禮儀」이후 편찬된 『祭器都監儀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吉禮用 祭器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실린 ‘祭器圖說’에 따라서 제작되었다.<sup>40)</sup> 이중 편찬연대가 분명하거나 추정이 가능한 ‘祭器圖說’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실린 祭器들은 朝鮮王朝 末期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문양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吉禮用 祭器는 원칙적으로 朝鮮 初期부터 末期까지 동일한 형태와 문양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吉禮用 粉靑祭器는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중엽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제

40) 奎章閣 소장 자료중 『世宗實錄』「五禮儀」와 『大明集禮』를 제외하고 연대추정이 가능한 儀軌로 ‘祭器圖說’이 실려있어서 유물과의 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꾸준한 변화가 보였고, 그 변화의 양상은 '祭器圖說'이라는 일정한 규범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전하는 여섯가지 기종중 이와같은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簠(보)와 簋(괘)를 중심으로 그 형태와 문양 및 시문기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吉禮用 粉靑祭器의 양식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簠(보)는 1단계인 1420년경 부터 1450년경 사이에 제작된 경우 장방형의 몸체에 투공이 있는 손잡이와 작은 장식이 붙어 있고 굽은 톱니모양으로 처리되어 있다(圖 4). 뚜껑 역시 장방형으로 양쪽에 고리가 달린 톱니형태의 장식이 붙어 있다(圖 6). 각 면의 모서리는 각이 크고 분명하게 꺾이며 끝부분은 날카롭게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2단계인 1450년경부터 1470년경으로 넘어가면 각 면의 모서리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고 양쪽으로 붙어 있던 손잡이가 장식대와 같이 변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圖 16). 뚜껑에 붙었던 고리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톱니형 장식의 끝부분이 많이 무터진다(圖 15). 3단계인 1470년경부터 1540년경 사이에 제작된 유물들은 장방형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날카로운 모서리의 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며 전체적으로 곡선 위주의 형태로 바뀐다(圖 22). 톱니형태의 굽 역시 끝처리가 둥글게 바뀌거나 높이만 조금 높은 일반적인 굽의 모습으로 변한다. 손잡이와 장식들은 길고 짧은 대와 같이 변하며 새로운 장식형태로 바뀌거나 사라진다.

문양 소재로는 雷文, 물결文, 蓮瓣文 등이 주로 사용된다(圖 4,6). 그러나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서 雷文의 크기가 커지고 물결文의 문양 갯수가 줄어 들며 굴곡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느슨해졌고 蓮瓣文 역시 2단으로 시문되던 것이 대부분 1단으로만 처리되는 등 과장과 생략이 나타나며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圖 15,16). 3단계에서는 문양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진 경우가 많고 간혹 문양이 시문되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변형된 형태를 하고 있다(圖 23).

<표 3> 朝鮮時代 『祭器都監儀軌』

『祭器及饌實圖』	奎 25201	未詳
『國朝五禮序例』	奎 184~186, 2277, 11970	成宗5年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奎 14930	宣祖 38年
『祭器都監儀軌』	奎 14931	光海君 3年
『宗廟儀軌』	奎 14220	顯宗 8年
『社稷署儀軌』	奎 14229	正祖 7年
『太常志』	奎 865	高宗 10年

이중 『祭器及饌實圖』는 年紀가 없으나 犧尊과 象尊의 형태로 볼 때 『世宗實錄』 「五禮儀」 編纂 이후 『國朝五禮序例』가 編纂되기 이전 어느시기에 제작된 것이 거의 확실하며, 『太常志』는 藏書閣 소장본에 간행연대가 高宗 10年으로 되어있다.

簋(궤)의 경우 1단계에 속한 유물들은 타원형의 몸체에 투공이 있고 굽으로 연결되는 손잡이와 풍혈이 뚫린 원형의 높은 굽이 달려 있으며 뚜껑에는 원형으로 배치된 네 개의 납작한 반원형의 장식이 붙어 있다(圖 9.11). 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며 뚜껑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체와 뚜껑의 형태가 簠와 유사한 장방형으로 변하기도 하며 원형으로 바뀐 유물도 있다(圖 17.18). 몸체에 붙어 있던 손잡이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어 붙어 있고 簠의 몸체에서 보였던 작은 장식이 붙는 경우도 있다. 뚜껑 역시 위쪽에 붙었던 반원형 장식판의 위가 납작해지며 사다리꼴 형태로 바뀐다. 그 배열도 형태에 따라 변해서 장방형의 형태 위쪽으로는 두 개씩 일렬로 배치되고, 원형의 형태 위쪽으로는 둥글게 연결되며 고리 모양으로 바뀐다. 3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의 유물이 원형으로 바뀌어 본래의 형태인 타원형은 찾기가 어렵게 된다(圖 24). 몸체에 붙어있던 손잡이는 점차 사라지고 장식 역시 없어지거나 간단한 거치대 형태로 바뀌고 원형의 높은 굽이 중간중간을 뚫어 놓은 할굽으로 대체된다. 뚜껑의 형태가 원형으로 바뀌에 따라 네개의 판장식은 길고 뾰족하게 변하면서 중앙으로 모여 뚜껑을 뒤집어 놓으면 네 개의 뾰족한 굽이 달린 사발과 같은 형태로 변한다.

簠와 달리 簋는 몸체와 뚜껑에서 조금 다른 문양이 사용되었는데 몸체에는 雷文, 圓文, 腺文, 나뭇잎文, 橢圓文이 주로 사용되고 뚜껑에는 몸체와 동일한 소재 외에 蓮瓣文과 聯珠文 그리고 분명한 명칭을 붙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양 소재들이 이용된다(圖 9.11). 2단계에 들어서는 1단계 문양형태가 단순화되고 뚜껑과 몸체에서 소재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사용된다. 꽃문양과 궤, 가재문양 등 1단계의 소재를 응용한 문양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3단계로 넘어가면 무문이 늘어나지만(圖 24) 궤와 가재 그리고 선문이 계속 이용되면서 簠보다는 문양이 시문된 경우가 많다.

문양의 시문방법과 시문형태는 모든 유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1단계의 유물들의 문양은 빈틈없이 전면 가득이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주문과 종속문이 구분되어 시문된다(圖 4). 시문기법으로는 상감기법만이 이용되고 그 중에서도 백토를 이용한 선상감만이 이용된다. 선상감 기법이 이용된 것은 다른 粉靑沙器의 기법들에 비해서 이 기법이 정교한 시문이 가능하므로 섬세한 음각을 사용한 銅器의 문양과 유사한 표현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단계에 속한 유물들은 시문기법으로 조화기법이 주로 사용되며 문양은 1단계와 달리 동체의 일부분에만 시문되어 있고 주문과 종속문의 구분이 점차 사라진다(圖 17). 조화기법이 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粉靑沙器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문기법 중의 하나이며 象嵌기법보다는 선위주의 문양소재를 표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印花기법과 剝地기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들은 祭器에 사용된 문양을 표현하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단계에 이르면 문양이 거의 시문되지 않거나 주문과 종속문의

구분이 없이 몇 개의 문양이 드문드문 시문되고 당시 모든 일반 粉靑沙器에서 사용되던 귀얄과 철화·덤벙기법이 이용된다(圖 22.23,25).

簠와 簋에서 보이는 이와같은 변화는 다른 기종의 吉禮用 粉靑祭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1단계 유물의 경우 일반 粉靑沙器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와 문양을 하고 있으며 시문기법도 銅器의 문양 표현에 가장 적당했던 白象嵌기법만이 이용된다.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가며 날카로운 모서리의 처리가 완화되고 손잡이와 장식 등 陶磁器에는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 사라지면서 점차 전체적인 모습에서 일반 粉靑沙器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단계에 이르게 되면 銅祭器의 모방에서 나왔던 딱딱하고 엄숙한 祭器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粉靑沙器의 모습을 반영하는 형태와 문양으로 바뀌며 시문기법도 당시 粉靑沙器에서 이용되는 모든 기법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粉靑祭器의 변화는 吉禮用 粉靑祭器가 銅祭器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본래의 재질인 粉靑沙器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한 儀式器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V. 맺음 말

지금까지 朝鮮王朝의 國家的 祭祀儀式인 吉禮에서 사용된 粉靑祭器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世宗實錄』 「五禮儀」(1454)의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吉禮는 大祀, 中祀, 小祀로 구분되며 각 祭祀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사용되는 祭器의 종류와 갯수에 차이가 있었다. 吉禮用 祭器의 기종은 약 30여 가지에 이르렀고, 대부분 銅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中國의 古銅器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에 실린 祭器가 明代의 禮書인 『大明集禮』 「祭器圖說」에 실린 祭器와 기종은 물론 형태와 문양까지도 거의 같은 점으로 볼 때 朝鮮王朝 吉禮用 祭器의 원형은 中國祭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통해서도 15세기 전반 銅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陶磁祭器가 吉禮用 銅祭器의 대체품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위로는 왕실의 祭祀에서부터 아래로는 지방의 소규모 祭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가장 활발히 제작되던 陶磁器는 粉靑沙器였으므로 實錄에서 의미하는 '磁器'는 粉靑沙器라고 판단되었다. 이와같은 추정은 粉靑沙器 유물중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에 실린 吉禮用 祭器와 동일한 형태와 문양을 한 유물들이 전하는 사실로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吉禮用 粉靑祭器의 기종이 『饌實圖』중 규모가 작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祭祀에서 사용된 銅祭器의 기종과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粉靑祭器가 규모가 크고 중요한 祭祀에서 이용된 경우는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禮書에 실린 '祭器圖說'의 祭器를 따라 일정한 형태와 문양을 유지했어야 할 粉靑祭器는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변화의 양상은 형태와 문양 및 시문기법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가능했다. 1단계인 1420년경에서 1450년경까지 제작된 유물들은 '祭器圖說'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粉靑沙器보다는 銅器에 어울리는 형태와 문양을 하고 있었으며 시문기법도 銅器의 문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白象嵌기법만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2단계인 1450년경부터 1470년경 사이에 제작된 유물들에서 부터는 '祭器圖說'과는 다른 형태와 문양이 나타나면서 銅器에서 보이는 특징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1470년경부터 1540년경에 이르는 시기에 속하는 유물들은 '祭器圖說'보다는 일반 粉靑沙器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많이 지닌 祭器로 변해있었고 시문기법 역시 당시 粉靑沙器에서 이용되던 기법들이 모두 사용되었다.

이처럼 吉禮用 粉靑祭器는 보수성이 강한 일반적인 儀式器들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문양에서 자체적인 변화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吉禮用 祭器의 특징과 일반 粉靑沙器의 특징을 적절히 조화시킨 형태로 바뀌었다. 이와같은 변화는 또한 전체 粉靑沙器의 변화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儀式器인 祭器 역시 큰 흐름은 일반 陶磁器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鄕校 등에 현재 3단계에 속하는 형태의 粉靑祭器가 소장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粉靑祭器는 마지막까지도 吉禮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粉靑祭器의 형태와 문양에서 변화가 나타난 원인으로 이들의 사용처가 중앙의 祭祀에서 지방 祭祀用으로 바뀐 점을 들었다. 그러나 吉禮用 祭器에서 이러한 변화가 허용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吉禮用 粉靑祭器에 대한 좀더 정확한 양상의 파악을 위해서는 제작기법 및 재질의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常用器形態의 祭器는 물론 銅祭器 및 白磁祭器와의 연관 관계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Punch'ong* Vessels Used on *Killye* (吉禮)  
in the First Half of the Chosŏn Dynasty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inds from Ch'unghyo-dong Kiln Site

Chung, So-ra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shown in *Punch'ong* ritual vessels used in sacrificial rites of the state in the first half of the Chosŏn dynast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wares from Ch'unghyo-dong (忠孝洞) kiln site.

*Killye* (吉禮) comes in the first of the Five Principal Rites held by the state. Therefore, the Chosŏn dynasty, which adopted confucianism as its state ideology, tried to maintain the social order by this ritual. The *Oryeŭi* (五禮儀) of the *Sejong sillok* (世宗實錄), published in 1454, has detailed prescriptions about the five rites which include the comment on the shape and materials of the vessels used in those rituals, and such regulations prevented the practice from being unwittingly subject to any arbitrary changes.

According to the *Sejong Sillok Oryeŭi*, some twenty sacrificial rites are described in three categories: the Large Sacrifices (大祀), the Medium Sacrifices (中祀), and the Small Sacrifices (小祀). About 30 different types of ritual vessels used for *Killye*. They were required to be made of copper, and there were no ceramics. Each sacrifice used different vessels in kinds and number. An important sacrifice of large scale used all kinds of vessels, and their total number reached 80, whereas relatively less important sacrifice of small scale used only 8 kinds, which counted 10 or so in number. Ritual vessels for *Killye* were different from wares for daily use, but had the same shape and design as the vessels described in the *Daimingjili* (大明集禮), and this means they were based on the Chinese ritual vessels.

The advent of ceramic wares in these rites was due to the shortage of copper. The supply of copper was not so stabl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osŏn dynasty because it was highly demanded for the manufacturing of arms and Buddhist utensils as well as the general preference for brass wares among common people. Particularly during the 15th

century, the policy of common circulation of copper coins caused the shortage of supply for ritual vessels. Under these circumstances, ceramic wares were thought to be a good substitute for copper wares. Thus *punch'ong* wares, which highly flourished in this period, became widely used for the ritual vessels for *Killye*, from sacrifices of the royal family to small-scale sacrifices performed by local communities. Extant ceramic vessels, however, are generally the same kind as the brass vessels used in less important sacrifices of small scale, and indicate that *punch'ong* ritual vessels were rarely used for important and large-scale sacrifices.

According to the *Sejong sillok oryeüi*, the later version of the *Yesö* (禮書) and the Illustrated Book of Ritual Vessels (祭器圖監儀軌), the ritual vessels for *Killye* should have, in principle, fixed shapes and designs, which should not be changeable through time. But the analysis of extant examples of *punch'ong* ritual vessels shows that they changed with time. Based on shapes, design and decoration techniques, the aspects of the chang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vessels of the first phase (1420-1450), faithfully follows the ritual vessels for *Killye* in the *Sejong Sillok Oryeüi*. Therefore, its shape and design were what would have been more suitable to the brass wares: for example, the white inlay technique was used uniquely for decoration. But such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brass wares began to disappear in the second phase, (1450-1470), and finally came to have looks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vessels of the *Sejong sillok oryeüi*. The vessels of the last phase (1470-1540) finally go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nch'ong* wares particularly in decoration technique, and they were far removed from those described in the *Sejong sillok oryeüi*. Such a change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relaxation of restrictions, as the use of *punch'ong* wares was gradually moved from the sacrifices of the state to those of local communities.

As demonstrated here, contrary to the other ritual vessels, *punch'ong* wares for *Killye* changed in both shape and design, and consequently transformed itself towards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mal *punch'ong* wares and ritual vessels. From the fact that such a change in *punch'ong* ritual vessels paralleled with the change of ordinary *punch'ong* wares, we can confirm that the mainstream of ritual vessels also corresponded to that of ceramics in general.

A fundamental questions remains why changes in ritual vessels for *Killye*, normally subjected to strict regulations, was possible, and it will require further explorations in the

future. I believe, however, that the arguments in this study has provided some basis idea for understanding ritual vessels of the Chosŏn dynasty as well as ceramic ritual vessels. By understanding various aspects of ceramics, thi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horizon of the study of ceramics.